

## 주요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

### I. 의견수렴 과정

- ☐ ('23.7.12.) 금융위, 금감원, 회계기준원의 회계쟁점 관련 논의 후 「가상 자산 회계감독지침(안)」 공개
- ☐ ('23.6~7.) 회계기준 적용지원반 실무작업반의 의견 수렴
- ☐ ('23.7.26~8.9.) 상장회사, 회계법인, 사업자(거래소 등) 대상 설명회 개최(총3회)
- ☐ ('23.9.6.) 전문가 간담회 1차 회의 실시
  - 설명회 이후 주요의견 검토결과 보고
  - 상장회사, 사업자, 회계법인 의견 청취
    - \* 상장협·코협, DAXA, 한공회에서 발표
- ☐ ('23.10.12.) 1차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

### II. 주요 의견별 반영 결과

#### 1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등

- ☐ (적용대상)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준수대상 여부가 불명확
  - ⇒ (반영) 감독지침(안)은 IFRS 기준서를 근거로 구성하였는데, 일반기업 회계기준 적용회사도 준수하도록 근거 추가
- ☐ (시행시기) 기준서 제1001호 시행시기('24.1.1.)와 일치시킬 필요
  - ⇒ (반영) '24.1.1.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, 조기 적용 가능

□ (시행시기) 고객 위탁토큰에 대한 지침은 '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' 시행 이후부터 적용할 필요

⇒ (반영) '24. 7. 19.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여(예시, '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) 공시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

□ (경과조치) 기존 회계처리와 다를 경우 재무제표 반영방법에 대한 추가 설명 및 경과조치 구체화 필요

⇒ (반영)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소급법 적용(실무적 간편법 적용 가능)

## 2 「토큰 발행 기업」의 회계처리

□ (의견)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하여 단계별 용어를 명확화 하여 적용지침 적용시 혼란이 없도록 할 필요

⇒ (반영) 가상자산 발행(이하 '토큰') 관련 단계별 용어의 정의 추가

### <단계별 용어의 정의>

- 발행 : 토큰의 생성물량 및 백서(White Paper)를 통한 사용목적 등을 확정
- 배분 : 판매계약, 무상배포, 지급, 지급예약 등을 통해 토큰을 이전하거나 사실상 이전
- 유보 : 토큰이 생성되었으나 보유(예정)자가 결정되지 않아 발행자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황

□ (의견) 발행회사의 수익인식과 관련한 수행의무 이행시기를 회사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, 좀 더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

⇒ (미반영) 감독지침에서는 수행의무 이행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며, 회사가 판단근거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

- 회사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(IFRS 제정취지에도 맞지 않음)

- (의견) 유보(Reserved) 토큰의 경우 향후 배분을 가정한 개념적인 사항으로 실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는 메시지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
- 직접 발행원가가 개발원가와 실제 구분이 안 되는 점을 고려하여, 직접 발행원가의 자산 계상 가능성 여지가 있는 지침상 문구 삭제 필요
- ⇒ (반영) 배분되지 않고 발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유보토큰의 경우 매각 등 배분 후 비로소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갖게 되므로 유보단계에서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

### 3 「토큰 보유 기업」의 회계처리

- (의견)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, 재고자산 외의 계정으로 반영이 가능한 지 여부
- ⇒ (반영)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토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명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도록 원칙 추가
  - 관련 질의회신(2018-G-KQA006 가상통화 회계처리)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기타자산으로 분류가능하고, 공정가치 평가 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계상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
- (의견) 토큰 발행주체가 매각 후 유상매입 등을 통해 재취득하는 물량이 가상자산 보유금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,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식원칙을 추가할 필요
- ⇒ (반영) 수행의무 완료 이전단계에서 재유입 취득한 경우 동 취득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원칙(계상한 계약부채와 매입대가와 상계처리) 추가
- (의견) “플랫폼 운영 및 채굴”에 의한 취득도 고객과의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

⇒ (반영) “용역제공대가 또는 기타 교환에 따른 취득”의 용역제공의 범위에 “스마트 계약(Smart Contract)\*”도 포함되도록 명시

\* 스마트계약(Smart Contract) : 분산원장기술에서 거래의 일정조건을 만족시키면 당사자 간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기술

□ (의견) 공정가치가 있는 토큰을 무상수령한 경우에도 취득원가를 '0'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

⇒ (반영) 마케팅 목적으로 발행자가 토큰을 무상배포(airdrop) 하는 경우 수령 당시 플랫폼 내에서 재화나 용역 이용대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\*할 수 있다면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외에는 최초 수령시 영(0)으로 인식

\* 대규모 무상배포로 배포 전 형성된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토큰의 합리적인 공정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

- 기타 발행자 외 제3자로부터 정상적인 거래\*로 무상 수령한 토큰의 경우, 토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영(0)으로 인식

\* 발행자가 수행의무 이행 전에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무상배포하는 경우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

※ 수행의무 이행 전에 대규모 무상배포 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타 증여와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달리 정함

□ (의견) 통상 무형자산은 개별법을 원칙으로 인식하는데, 동일한 토큰이 대량으로 거래되는 토큰에 대해 다른 원가인식 허용지침 추가 필요

⇒ (반영) 취득토큰에 대하여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을 적용\*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

\*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,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동일한 토큰을 다수 또는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측정 가능

## 4

## 「가상자산 사업자(거래소)」의 회계처리

- (의견) 고객 위탁토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 여부는 사업자 판단사항이나, 좀 더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할 필요
- ⇒ (미반영) 회사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(IFRS 제정취지에도 맞지 않음)
- (의견) 거래소에서 하는 가상자산 예치 및 수익 지급(스테이킹 서비스\*)에 대한 회계처리방안을 지침에 포함할 필요
  - \* 거래소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지분증명에 활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분배하는 서비스
- ⇒ (반영) 스테이킹서비스는 고객으로부터 토큰을 예치받아 예치한 고객에게 보상을 분배하는 서비스로, 고객위탁 토큰에 대한 지침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을 지침에 추가
- (의견) 사업자 자산·부채로 계상하는 고객위탁토큰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해 명시할 필요
- ⇒ (반영) 관련 평가손익\*은 자산·부채에서 동일한 금액이 대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쇄\*\*하되, 주석에 관련 내용을 공시
  - \* 고객위탁 토큰의 시세변동에 따라 평가손익이 발생하는 경우
  - \*\* 자산·부채 측면에서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것은 아니며, 고객위탁 토큰의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하여 감독지침에서 정한 회계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인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수익·비용 총액과 영업실적과의 연관성을 찾기 곤란한 점을 고려

## 5

##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

- (의견) 가상자산 통합 사이트의 공시가격을 공정가치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
- ⇒ (반영) 거래소의 가상자산 가격정보가 회사의 적용가능 정보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고, 거래소 간 가격 괴리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, 평균가격의 사용을 금지하는 Negative한 표현은 삭제

□ (의견) 무형자산 재평가목적상 공정가치의 경우 Level 1, 2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침에 반영되어 있으나, 공정가치 기준서 상으로는 Level 1만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

\*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(무형자산)

문단 75.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. 이 기준서의 재평가 목적상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측정한다. (이하 생략)

⇒ (반영) 무형자산 기준서 상에 활성시장을 기초에 대한 정의가 없는 점과 보유회사의 평가 부담 및 포함의 실익\* 등을 고려하여 무형자산의 재평가목적의 공정가치는 Level 1로 제한할 필요

\* 대부분 거래빈도와 규모가 충분한 비트코인, 이더리움 및 스테이블코인을 보유

○ 감독지침 초안의 활성시장 기초 측정(Level 2)의 경우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의견\*이 있는 바, 접수된 사례를 Level 2에 포함하여 중개기업의 순공정가치 등에 고려할 수 있도록 지침 수정 필요

\* ① 토큰을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경우가 잦아 네트워크의 차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, ② 탈중앙화거래소(DEX) 등의 스왑풀 혹은 유동화풀을 통해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려 필요

### 상황별 공정가치 측정 고려

분류	상황	공정가치 적용범위
무형자산	재평가모형 적용 손상 회수가능액(원가모형)	Level 1 Level 1~2, 이익접근법, 시장접근법
중개기업 보유 일반상품(재고자산 분류)	순공정가치	Level 1~2
기타자산*	공정가치	Level 1~2
사업결합	공정가치	Level 1~2, 이익접근법, 시장접근법
증권토큰	공정가치	Level 1~2, 이익접근법, 시장접근법

\*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이 질의회신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한 경우

### Ⅲ. 감독지침 외 기타 지원방안

#### 1 개 요

□ 상장회사, 사업자 및 회계법인의 질문·건의사항 중 감독지침에 반영할 성격은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○ 감독지침 및 기준에 의해 답변이 가능한 질의에 대하여는 Q&A를 보완

#### Q&A 추가 필요한 질의

- 가상자산 전송비용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지? 선급비용 계상 후 소진됨에 따라 인식하는지?
- 통합사이트(코인마켓캡 등)의 가격이 공정가치로 허용되는 것인지?
- 토큰보유기업의 최초 측정 "플랫폼 운영채굴" 관련, 취득한 토큰 취득원가 산정시 "용역 제공 대가기준"을 준용할 수 있는지?
- 자사 거래소를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특정금융정보법(시행령 §10-20)의 자기거래 금지규정과 충돌되는데, 접근가능한 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?
- NFT에 대하여도 공시가 의무화되는지?
- 가격변동위험성에 대한 공시는 내재적 위험성까지 기재해야 하는지?

○ 기타 특정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

####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논의 필요사항

- 재평가나 손상 관련 공정가치의 양적·질적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?
- 발행기업의 유상매각 및 유상매각 이외 물량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?
-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및 지침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(NFT, 게임토큰)를 구체적 사례별로 명시할 필요
- 백서의 변경은 빈번하게 발생. 어디부터 오류로 봐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
- 커스터디 사업자, 스테이킹 서비스 등에 대한 지침 보완 필요
- 발행자가 플랫폼을 소유하는지에 대한 판단지표, 플랫폼 소유 여부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의 추가 고려 필요

- 국내지배기업이 해외 종속회사를 통해 토큰을 발행하고 플랫폼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지배기업이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지배기업의 회계처리 이슈에 대한 지침 제공 필요
-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통제종류별 영향, 발행 재단 등에 대한 연결 여부에 대한 판단지침 제공 필요

⇒ 상장협·코협, DAXA 및 한공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운영 등 지속적으로 소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

## 2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

- **(구성)** 각 협회, 가상자산 발행·중개 주요회사 및 회계법인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이슈에 대해 논의
- **(논의사항)** 가상자산 발행·보유·거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의 공유, 공통 업무프로세스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논의 및 감독당국과의 협의 필요사항 발굴
- **(주요기능)**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련 FAQ, 가이드라인 마련 및 운영
  - ※ 필요시 별도 홈페이지 개설
  - 감독지침에 첨부된 Q&A와 기타 관련회사에서 제기되는 각종 질의사항을 추가하여 FAQ 운영
  - 가상자산 발행·보유·거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필요시 업무프로세스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
  - FAQ, 가이드라인 등으로 해결되지 않은 회계이슈에 대하여는 기준 관련 질의회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 및 지원